

# 다니엘서 - 백육십번째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예언적 의미: 말세를 위한 진리의 계시

Jeff Pippenger

2024-03-26

제10장에서 다니엘은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애통의 날들로부터 부활하는 자로 드러난다. 그 다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제11장의 예언적 역사를 전해 주어, 이로써 큰 히데겔 강의 빛의 역사를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는 우리 사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 권세와 교황권에 관하여는 어떤 부분에서는 덜 말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주심에 있어서도, 묘사된 사건들에 있어서도, 인간 도구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야 하며,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모든 일을 그렇게 안배하셨다.

다니엘서를 읽으라. 그곳에 묘사된 왕국들의 역사를 조목조목 상기하라. 정치가들, 의회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사람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엮드리게 하셨는지 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난다.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그분은 한 강력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이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보이신다. 그분은 우주의 군주, 곧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신다—옛적부터 계신 이,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요, 미래를 계시하시는 분. 사람이 헛됨 가운데 자기 영혼을 높일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그르치기 쉬우며, 얼마나 죄 있는지를 읽고 깨달으라.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께—시선을 돌리게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통치권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빛은 특히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시날의 큰 강들인 올라이 강과 히데겔 강가에서 그가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6권, 333, 334.

성령께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예언이 주어지는 일과 그 "사건들"을 "그처럼 형성하셔서," 첫째 장(십장)이 마지막 장(십이장)과 마찬가지로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경험을 나타내게 하셨다. 히데겔 강의 빛을 이루는 이 세 장의 형성은, 곧 "특별히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것은, "진리"의 세 단계 정의를 지니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처음 것이 마지막 것과 일치하고, 가운데 것이 반역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구조—곧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글자와 열셋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진 구조—를 볼 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도 보게 된다.

다니엘서 10장은 2,520년의 'chazon' 환상과 2,300년의 'mareh' 환상을 모두 이해하는 14만 4천인을 밝힌다. 그들은 그 두 환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여성형이자 사역형인 'marah'의 '나타남' 환상에서 비롯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도 힘은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발달은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정신적·영적 발달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두셨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모든 원칙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한 생각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이따금씩 하거나 단편적으로 공부해서는 얻을 수 없다. 그 위대한 진리의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독자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보화 가운데 많은 것들은 표면 아래 깊이 놓여 있으며, 부지런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 위대한 전체를 이루는 진리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사야 28장 10절)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

이처럼 찾아내어 모아 보면, 그것들이 서로 완전히 들어맞음을 알게 된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을 설명하며, 모든 진리는 어떤 다른 진리의 전개이다. 유대 경륜의 예표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의 모든 원리는 제자리를 지니고, 모든 사실은 그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조는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그 저자를 증언한다. 그러한 구조는 오직 무한하신 분의 지성이 아니고서는 구상하거나 빚어낼 수 없다.

여러 부분을 찾아내고 그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정신의 최고 기능들이 극도로 활성화된다. 그러한 연구에 종사하면서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성경 연구의 정신적 가치는 진리를 찾아내어 종합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제시된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에도 있다. 오직 일상적인 일들에만 몰두한 마음은 위축되고 쇠약해진다. 장대하고 원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과제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간과 함께 성장의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퇴화를 막고 발전을 자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지적 훈련의 수단으로서 성경은 어떤 다른 책보다도, 아니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그 주제의 위대함, 표현의 품위 있는 단순함,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듯이 사고를 일깨우고 고양시킨다. 계시의 장엄한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만큼 그러한 정신적 힘을 부여하는 다른 공부는 없다. 이처럼 무한하신 분의 생각과 접촉하게 된 마음은 확장되고 강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적 본성의 발전에 있어서 성경의 능력은 더욱 크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된 인간은 오직 그런 교제 안에서만 자신의 참된 생명과 발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찾도록 창조된 그는 마음의 갈망을 잠재우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줄 것을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실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의 저자와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한 그의 발전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다.

성경은 그 문체와 주제의 폭넓음 속에서 모든 지성의 관심을 끌고 모든 마음에 호소할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그 페이지들에는 가장 오래된 역사, 삶에 가장 진실한 전기, 국가의 통치와 가정의 규율을 위한 원리들—인간의 지혜가 일찍이 견주지 못한 원리들—이 담겨 있다. 그것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감미롭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애절한 시가 들어 있다. 이처럼만 보더라도 성경의 기록들은 어떤 인간 저자의 작품들보다 가치 면에서 헤아릴 수 없이 우월하다. 그러나 그 위대한 중심 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바라볼 때, 그 범위는 무한히 더 넓고 그 가치는 무한히 더 크다. 이 사상의 빛에서 바라보면 모든 주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가장 간명하게 진술된 진리들 속에도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아우르는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중심 주제, 곧 책 전체의 모든 다른 주제가 모여드는 주제는 구속의 계획, 즉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에덴에서 선언된 말씀 속에 처음 암시된 소망으로부터,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 22:4) 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구절이 지닌 핵심은 이 놀라운 주제, 곧 인간의 고양—'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고린도전서 15:57)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교육, 123-125.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는, 문학의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고찰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인간의 저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남이 확인된다. 화잇 자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페이지들 속에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고, 가장 생생하고 진실한 전기가 있으며, 국가의 통치를 위한 정부의 원칙과 가정의 규율을 위한 원칙들—곧 인간의 지혜가 결코 견줄 수 없었던 원칙들이 있다. 그 안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감미롭고 가장 장엄한 시, 가장 열정적이며 가장 애처로운 표현이 담겨 있다." 또한 "그와 같은 구조는 무한하신 분의 정신 외에는 어느 누구의 정신도 구상하거나 형성할 수 없었다."

문학의 구조를 이루는 규칙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간 세계의 모든 규범은 성경에 의해 초월된다. 인간 세상의 대학들에서 제시되어,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문학과 인간 문학의 걸작들을 구별하는 원리들 또한 모두 성경에 의해 능가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성경 전체의 예언적 증언의 절정, 그 장엄한 결론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제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것은 예언적 증언의 정점이며, 인간 문학 가운데에는 다니엘 11장 1절에서 시작하여 12장 4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증언에 근접하는 절정이 전혀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 마무리되며,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다루어진 것과 같은 예언의 맥락이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첫 언급이고, 계시록은 마지막이다. 모든 것은 그 첫 언급 속에 이미 존재하며, 모든 것은 다니엘서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책의 절정은 히데겔 강가에서 주어진 환상이다. 그 환상이 묘사하는 사건들의 절정은 40절에서 시작되어, 12장 4절에서 그 책이 봉함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 구절들은 화이트 자매를 포함한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거나 기록된 모든 예언적 진리의 대단원을 나타낸다.

11장에서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11장 마지막 여섯 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증언을 제공하는 장 안의 역사들이다. 그 마지막 여섯 절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삼중의 원수들이 이제 세상을 인류의 은혜 기간의 종결로 이끌고 있다. 화잇 자매는 이 내적 원칙을 직접 지적한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잃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환난의 때가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에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에는 한 권세에 대하여 '그가 근심하고 돌아와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하리니,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이요, 그는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내통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항상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언약을 거스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는 아침으로 부패시키려니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담대히 행하리라.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여러 날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질 때에 조금의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가담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이 넘어질 것이니, 이는 그들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려 함이며, 끝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때가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을 하며,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이미 작성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0-36.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모두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이해하라. 우리는 지금 언급된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깨어나되,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로 나아가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세세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너는, 오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다니엘 12:1-4. 원고 발표집, 13호, 394.

이 구절에서 화잇 자매는 먼저 다니엘서 11장을 언급한 다음, "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다. 이어서 그녀는 30절부터 36절까지를 직접 인용하고, 그 뒤에 "이 말씀들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30절부터 36절까지를 지목하고, 그 절들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녀는 12장 1절에서 미가엘이 일어서는 때, 곧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때를 지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 일곱 절을 따로 떼어 내어, 미가엘이 일어서기 직전에 놓이는 역사 속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30절부터 36절에 해당하는 역사와 그것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과 어떻게 병행하는지를 여러 차례 다루어 왔으며, 이제 그 마지막 여섯 절에서 반복되는 11장 내 다른 예언적 역사 시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절부터 36절과 40절부터 45절의 병행 관계를 간략히 다시 요약하여 제시하겠습니다.

30절은 이교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그 전환의 역사는 330년, 508년, 533년, 538년과 같은 연대를 지적하는 다양한 예언적 구절들에서 다루어진다.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에서 다섯째 왕국으로의 전환에는 다른 예언적 표지들도 있으나, 31절에서 이교 로마는 496년의 클로비스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교황권을 위하여 일어선다. 그 절에서 처음에 클로비스로 대표되는 이교 세력들은 508년에 이르러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모든 이교적 저항(매일)을 제거하는 일을 성취한다. 그 시대의 전쟁은 "힘의 성소"로 표상되는 그 역사 속의 로마 성을 향하여 파괴를 가져오며, 538년에 이르러 이교 세력들은 교황권을 땅의 보좌에 앉히고, 그리하여 그녀는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을 제정한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암흑시대의 천이백육십 년 동안 교황권이 그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대적하여 자행한 살육적인 전쟁을 지목한다. 마침내 36절에서 교황권은 그의 종말에 이른다. 40절에서 레이건은 적그리스도와 비밀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508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개신교의 저항이 제거된 때를 표시한다. 재정과 군사력에 대한 레이건의 헌신은 496년에 교황권을 위하여 일어선 "무력"에 의해 예표되어 있었다. 로마 시로 표상된 이교 로마의 힘의 성소의 파괴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미국 헌법의 파괴를 예표하는데, 이는 헌법이 미국의 힘의 성소이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 때에 교황권은 538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지상의 보좌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때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암흑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향한 살인적인 교황권의 최종 박해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미가엘이 일어설 때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며, 천이백육십 년 동안 흥왕하던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라는 진노를 받았던 1798년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고, 더 높고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공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든 것처럼 모조리 타 버렸다. 소방차는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의 때가 오고도 교만하고 야심찬 인간들의 마음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하시기에 강하던 그 손이 멸하시기에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지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품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보응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들을 멸망에서 보존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의 현 상태를 낳은 근본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육자와 정치가들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 국정을 맡은 이들은 도덕적 타락, 빈곤과 빈민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 운영을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강탈과 착취로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모았다. 보라, 너희 밭을 베어 추수한 일꾼들의 삯을 너희가 속여 떼어 둔 그것이 부르짖고,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였으며, 도살의 날에 하듯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5:3-6.

그러나 급속히 이루어져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주는 경고를 누가 읽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인상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였던 것 이상은 없다. 세상 일과 쾌락에 몰두하던 홍수 이전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데려가기까지 알지 못하였다."(마태복음 24:39)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보내신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영으로 소란해지고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예언들 가운데 언급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증언보감』 제9권, 12-14.